

“빅맨 퇴장땐? 파워포워드 문태종 있다”

‘40분 울코트 프레스’ 유재학 감독의 플랜 B

김주성·오세근·김종규·이종현 파울 부담
한명이라도 5반칙 퇴장엔 체력 소모 문제
“문태종 포스트 수비 가능…포워드로 활용”
마지막 평가전 만원관중…팀은 1점차패

유재학(51·모비스) 감독이 이끄는 남자 농구대표팀은 ‘40분 울코트 프레스’를 추구한다. 여기에 공격 템포도 빨라 선수들의 체력 소모가 심하다. 7~8명이 주축으로 뛰었던 과거 대표팀과 달리 12명의 엔트리 모두가 경기에 뛸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처럼 강한 수비에 포커스를 맞춘 대표팀이지만, 매 경기가 계획대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당초 계획이 틀어질 경우를 대비한 플랜B도 요구된다.

●빅맨 5반칙 퇴장 대처는?

대표팀 포스트는 김주성(35·205cm)~오세근(27·199cm)~김종규(23·207cm)~이종현(20·206cm)이 맡는다. 유 감독은 센터들에게도 넓은 수비 폭을 요구하고 있는데 상대 빅맨들과 몸싸움까지 펼쳐야 하기 때문에 체력소모가 두 배다.

또한 파울트러블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7월 25일 용인 모비스 체육관에서 열린 대만대표팀과의 경기에서는 4명의 빅맨이 20개의 파울을 범했다. 본 경기였다면 빅맨 없이 경기를 치러야 할 상황이었다. 유 감독은 “손을 쓰는 습관 때문에 파울이 많이 붙었다. 그날(25일) 경기 직후 센터들한테 수비 요령을 다시 강조했다”고 밝혔다.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에서 빅맨들이 5반칙 퇴장을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빅맨 1명이라도 퇴장을 당할 경우 남은 선수들의 체력부담이 가중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한 유 감독의 ‘플랜B’는 문태종의 파워포워드 기용이었다. 유 감독은 “지금은 외곽수비를 하고 있지만, 포스트 수비도 가능한 선수다. (문)태종을 4번(파워포워드)으로 활용하기 위한 움직임과 공격 패턴에 대해서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 평가전도 ‘만원관중’

대표팀은 31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뉴질랜드와의 평가전에서 70-68로 앞선 경기 종료 직전 상대 슈터 커크 페니(196cm)에게 3점 버저비터를 맞고 70-71로 석패했다.



문태종(왼쪽)이 31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뉴질랜드와의 평가전에서 상대 수비를 뚫고 골밑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 농구대표팀 유재학 감독은 빅맨들이 5반칙 퇴장을 당할 경우를 대비해 문태종을 파워포워드로 활용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장철 | 김종현 기자 won@donga.com 트위터@beanjin

이로써 대표팀은 뉴질랜드와의 5차례의 평가전을 2승 3패로 마감했다. 김주성은 “의미 있는 평가전이었다. 몸싸움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었고 우리 팀의 전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이날 학생체육관에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경기 시작(오후 1시) 3시간 여 전인 10시부터 표를 구입하기 위한 팬들로 북적였다. 또한 밸런트 이상윤, 가수 가희(에프터

스쿨) 등 농구를 좋아하는 연예인들까지 체육관을 찾았다. 학생체육관에 입장한 관중은 총 6523명. 29일 평가전 만원관중(6114명)을 넘는 수치였다. 대표팀 주장 양동근은 “많은 팬들이 와주신 덕분에 선수들도 힘이 났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경기장을 찾아주셔서 감사하다”며 체육관을 뜨겁게 달군 농구열기를 반겼다.

장철 |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트위터 @stopwook15

“짜장! 짬뽕!”…대표팀 웬 먹거리 타령?

쉽게 기억하기 위한 공격패턴명
유감독 “문태종도 잘 알아듣죠”

“짜장, 짜장!” “콜라, 콜라!”

2014 스페인농구월드컵과 인천아시안게임에 대비해 훈련 중인 남자 농구대표팀의 연습경기에서 선수들은 연신 낯익은 단어를 외친다. 이는 패턴 플레이를 의미하는 단어다.

유재학(51·모비스) 감독이 대표팀 지휘봉을 잡았던 2010년 광저우아시안게임, 2013아시아남자농구선수권에 이어 올해에도 대표팀은 우리 생활에 익숙한 음식, 음료수

로 패턴 이름을 붙였다. 사이드라인 공격 패턴명은 짜장, 짬뽕, 우동이며 엔드라인 공격전개 패턴은 콜라, 사이다, 세븐업, 환타다. 선수들이 패턴을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유 감독은 선수들이 드리블하는 시간을 줄이고 볼 없는 움직임을 강조하는 패턴을 추구하고 있어 로테이션 속지가 필수다. 한명이라도 로테이션을 헛갈릴 경우 공격 패턴

전개 자체가 흐트러진다. 유 감독은 “(김)종규와 (이)종현이는 아직도 (패턴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고 말할 정도다.

대표팀 슈터 조성민(31)은 “패턴명을 원, 투, 쓰리 같은 단어로 하면 상대 팀에서 파악을 한다. 하지만 우동, 짬뽕, 짜장 같은 단어는 상대 국가 선수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단어가라서 패턴명이 노출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말이 서툰 문태종(39)도 이해하기 쉽다. 유 감독은 “태종이도 짜장, 짬뽕, 우동은 다 알아 듣는다”며 너털웃음을 지었다.

장철 |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트위터 @stopwook15

박태환 ‘집밥’으로 전훈 박차

4주간 호주 전훈 어머니 유성미씨 동행
집 된장 등 식재료 챙겨가 금 뒷바라지



박태환과 어머니 유성미씨
그리고 이날 또 한명의 지원군이 박태환과 함께 호주로 향했다. 바로 박태환의 어머니 유성미(57)씨다.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바리바리 집을 싸들고 인천공항에 나타났다. 호주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식재료들을 꼼꼼하게 챙긴 것이었다. 특히 박태환이 평소 좋아하는 생선류가 많았다. 유성미씨는 “호주에는 한국에서 흔히 먹는 생선들을 구하기가 힘들다. 조기와 가자미 말린 것들을 가지고 간다. 현지에서도 고추장·된장을 구할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집에서 담근 것이 더 낫지 않겠다. 직접 만든 고추장·된장도 챙겼다”며 웃었다. 워낙 집이 많아 추가요금이나왔지만 모정(母情)은 전혀 개의치 않았다.

아들을 위한 유성미씨의 열정은 수영계에서 유명하다. 박태환이 처음으로 물에 몸을 담그는 순간부터 그랬다. 여섯 살 난 아들의 수영장 등록을 위해 밤새 기다리는 노고도 마다하지 않았다. 박태환이 초등학교이던 시절엔 유방암 진단을 받고도 초시계를 들고 아들의 경기장을 찾아다녔다. 박태환의 아버지 박인호씨가 “운동해봐야 ‘놀광’이밖에 더 되겠느냐?”며 아들의 선수 생활을 반대했을 때, “재능도 있는데 조금 더 지켜보자”고 마린보이를 지킨 인물도 바로 어머니였다. 유성미씨는 “(박)태환이는 엄마가 해주는 된장찌개를 제일 좋아한다. 삼시 세끼 장을 봐서 밥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호주에서 바쁠 것 같다”며 미소를 지었다. 박태환은 ‘엄마표 집밥’의 힘으로 아시안 게임을 위한 최후의 담금질에 돌입했다.

전영희 기자 setupman@donga.com 트위터@setupman11

인천AG조직위 “8월 4일 인천서 성화봉송단 발대식”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는 31일 “8월 4일 인천시 평생학습관에서 인천지역 봉송주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화봉송단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성화봉송단장에는 박선구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부단장에는 박형수 인천시체육회본부장이 위촉됐다. 조직위는 대회의 역사성을 강조하기 위해 9월 제1회 아시안게임 개최지였던 뉴델리에서 성화를 채화하기로 했다. 이 성화는 12일 중국 웨이하이로 봉송된 뒤 서해대교를 밝히면서 13일 인천항에 도착한다.

AP통신 “나달 손목 부상, US오픈 출전 힘들수도”

AP통신은 31일(한국시간) “남자프로테니스(ATP) 세계 랭킹 2위 라파엘 나달(스페인)이 오른 손목 부상을 당해 US오픈 출전이 힘들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나달의 매니저인 베니토 페레스-바르바틸로에 따르면 나달은 최근 스페인에서 훈련하던 도중 오른 손목을 다쳤다. 나달은 왼손잡이지만 백핸드샷을 칠 때 양손을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오른 손목이 아프면 제 기량을 발휘할 수 없다.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인 US오픈은 25일 막을 올린다.

편집 | 최혜경 기자 hk7048@donga.com 트위터@hk7048



산채가 와 함께 할 가맹점주님을 모집합니다



깊은산 맑은이슬로 키운 자연 그대로의 건강한 음식이기에
매장마다 **손님이 넘쳐 납니다!!**



산채가는...

- 백두대간 순수 국내산 산채만을 사용합니다.
- 저렴한 창업비용
(기존영업중인음식점 1,000만원대창업)
- 산지 계약재배로 안정적인 물류공급
- 자체직영제조, 가공공장을 운영
점주 마진 극대화



— 산채가 농장전경 —

산채정식(곤드레/더덕/곰취)/비빔밥/산채초밥/산채오리 가맹 상담문의 **1544-3733**